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

창3:15, 마16:13-20

최정웅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아멘.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을 했다. 조금 헛갈린다. 공항에 가보면 어느 때보다 더 붐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 오는 사람도 많지만, 가는 사람도 많다. 조금 고급식당에 가보면 자리가 없다. 줄을 설 정도이다. 어떤 식당은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죽겠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한다. 내가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헛갈린다. 살만한데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꿩개치고 놀러 가는 건지 헛갈린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경에는 7개의 포인트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3절이다. 흑암, 혼돈, 공허가 땅에 충만했다고 2절에 나온다. 그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모든 것이 정상화 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인공적인 빛이 아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 빛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야라고 본다. 이 창조 전에 전 창조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영계가 어두워지면서 혼돈, 공허가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 빛이 이르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다.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포인트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창세기 6장 14절이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그 다음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망해버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대단한 고백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세례도 안 준다. 어떤 장로님이 장로 되시려고 노회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구절을 몰랐다. 성경 전체의 1189장이나 되는 절 수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모른다고 한다. 당신이 나는 그것을 모르면 세례도 안 주는데 당신은 한 교회를 돌보는 장로가 될 것인데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이 구절을 모르면 안 되죠' 하고 결국엔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 분이 다시 시험을 보러 왔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요한 요절을 다 외워왔다. 그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마지막 포인트이다.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가 오시면 성령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것이 7포인트이다. 이 포인트를 주신 이유가 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물고기는 물에 살게 하고 나무와 풀은 흙에 뿌리를 내려 살게 하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게 하셨다.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느냐는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살 때 가장 행복하다. 풀과 나무는 흙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행복하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살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살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한 황금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 에덴에서 창세기 2장 7-8절에 보면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25절에 보면 하와를 지어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주신다. 최초의 성경과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산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저것은 따먹지 말아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 하셨다. 그것은 주님이 처음으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뱀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 뱀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흑암, 혼돈, 공허가 뱀으로 둔갑해 하와를 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단절도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인구학자가 연구해보니까 모든 인류는 원시인까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발소에 갔다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서,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전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이다. 그러나 한 번 들어보세요.' 영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인이 거부하는 것 같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단은 이 때 발악을 한다. 이후로 인간은 지금 같은 이러한 불행이 온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한다. 이 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의 죄인이 된 것이다.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배반한 죄이다. 불효자식이 있는데 용돈 안 드리고 맛있는 것도 안 드리고 명절에 전화도 안 한다. 그런데 진짜 불효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보고 '네가 무슨 아버지야, 어머니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처럼 원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아버 마귀라고 말한다. 자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 임금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뒤에 원수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정도로 보인다. 너무나 처참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잠시라도 평안한 날이 없다. 여기서 평하면 저기서 평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문화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 퍼지는데 어떤 부족, 어떤 인간도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 그것도 종교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2절, 사도행전 16장 16-18절, 사도행전 19장 8-20절까지, 무술, 점술이 완전히 생활화, 문화화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이 된 것이다. 이것을 사마니즘이라고도 한다.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총 12가지이다. 근본문제, 영적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문제, 이것이 후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옛 틀이다. 성경은 이 열 두 가지 비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 틀을 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17절에 이 복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진정으로 7포인트를 이해하고 옛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평안이 온다. 정말 영접이 된다. 평안이 오고 모든 불편한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면서 안정이 온다. 그리고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입는 길이 바로 7가지 포인트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그를 맞이들이면 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능한 외우시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새 틀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을 맞이들이면 그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르게 된다. 이것이 완전 영적인 문제이다. 나는 TV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이 서로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것 보다 그냥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제부터 이런 상황, 이 포인트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전에 옛 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7가지 포인트로 새 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1. 예수님의 참 관심이 아닌 것이 있었다.

(1)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요한은 정의의 사자이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다. 사회운동가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운동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락방 초창기에 어떤 처녀가 와서 이야기했다. 청년이 와서 '결혼을 해서 같이 짝꿍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하더라. 그래서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졌다고 한다. 3개월이 지나니까 또 다른 동료 후배에게 똑같이 한 것이다. 3개월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다. 자기는 사회정의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했는데, 더 하나가 이럴수가! 해서 포기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살겠다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신약이 구약보다 더 약하다고 하는 것처럼 딱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옛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2) 엘리야는 능력, 기적, 신비를 행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우리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미어터질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다.

(3) 에레미야이다. 인도주의적이다. 밥 퍼주고 사랑을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문에 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했다. 필요는 하다. 그런데 배부르고 나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해야 하는데, 복지화 되 복지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지이다. 어두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성경말씀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더 이상 활동이 안되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진짜 복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다.

(4)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고 주문을 잘 외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 성령 스님은 '나는 길을 아직 몰라서 불교에 있을 뿐, 도를 깨우치면 불교를 그만 둘

것이다.' 자기가 삼기던 석가모니는 마귀 제자라고 말했다. 정의도 있고 능력과 권세도 있고, 사랑, 위로도 있다.

(5)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 바로 경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6가지 문제 속에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 없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 원하고, 정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게 된다.

2. 예수님의 참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기 관점에서 자신이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다. 그리고 세상중심이다. 이런 것들로 절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특별히 6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참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1)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분이다. 메시아는 헬라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해결해주마.' 이 말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세 직분을 줄 때 기름부음을 받는데, 피마자기름, 들기름, 올리브유가 아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잘 몰랐지만 그 기름은 바로 향수이다.

① 향수를 부어서 주는 직분이 첫 번째로 선지자이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②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 세울 때 향수를 붓는다.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실은 제사장은 세습이었다. 그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고라는 현장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죽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와서 전염병으로 1만 4천 7백여 명이 죽었다. 대단한 저주가 온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싸움 일이 아니다. 장로교, 감리교 제도가 따로 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구세군도 따로 못한다. 파송 받아야 한다. 교단에서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야 한다. 그런데 감리교는 많이 변했다. 감리교에서 세습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로교는 다르다. 교인이 목사를 청빙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교인 2/3가 '좋습니다.'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장로교 제도에서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 그것이 장로교 제도이다.

③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다. 대관식을 할 때 향수를 잘 다듬은 뿔에 넣어서 임직 할 때 붓는다. 선지자, 제사장, 왕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6가지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이 메시아의 약속이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계속 나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오직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이 수가 우물가에 찾아가셨다.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예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잔 주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상처가 많은 여자였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달라고 하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다주면 버드나무 이파리를 띄워준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물도 없힐 수도 있으니까 이파리가 입에 들어가지 않게 친절히 드세요.' 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물을 지금 내게 달라.' 예수님이 '줄 테니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다고 여자가 말하자,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다섯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다. 여자가 놀라서 말을 꼭 바꾼다. 그 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세요? 왜 꼭 교회만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서도 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나도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난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구약말로는 메시아, 신약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시면 자신도 이렇게 살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동네 사람에게 전해서 그 동네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관심은 인간들이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신다. 교회에 왜 가는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알려고 여기에 오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도 교인,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25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 맞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다.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그다. 그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나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분이다. 골로새서 2장 2절-3절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해온 자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말

해온 자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가 내 마음에 계시면,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다. 내가 너의 구속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너희 죄를 용서했으며, 저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건져내었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2)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알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다. 이것을 유일성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잘 다니고 주일 안 빠져서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2장 26절-27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19장 30절에는 완전히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

(3) 예수님의 참 관심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변화된다. 게으른 사람도 변한다.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도 변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변화되었나.' 확인해봐야 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어봐야 한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의에 있지 않으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되어진 것이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왕한테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진실, 사랑, 정의가 되어진 것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어떤 학생이 이야기한다.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신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실은 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교회도 거부한다. 정말 주님이 들어오시면 점점 모든 것이 개선되고 더 잘 되게 된다.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풀 수 있게 된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다스리시 시작하시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돌보기 시작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영접의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 원수가 사탄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길인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주신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이기시고 나를 그 손에서 해방시켜주신 참 왕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셨으니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며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주부는 영접기도를 했는데 진정으로 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누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어머니가 기도문을 연필로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문을 읽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기도문을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무릎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 때부터 자기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영적치유,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권면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정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려지게 하여주옵소서.' 내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 그것이 기도이다. 참사랑 가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목상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최후적인 것임을 다시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